***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5. 23.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22일 베트남 하노이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본규 LS전선 대표(우측)와 응우옌 호앙 롱 산업자원통상부 차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주호찬 차장(010-8553-7904,**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정부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  **■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위급과 면담 ■ 미중 갈등 속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대안으로 주목 ■ “30년 축적된 현지 경험으로 글로벌 공급망 거점 육성”**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정부와 희토류 산업 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나섰다.  LS에코에너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베트남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방한 당시 열린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와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사성 물질 관련 인허가 및 환경 규제 정비 ▲현지 광산업체와의 협력 기반 조성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미중 갈등 장기화로 중국이 희토류 산화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제 및 금속화 기술 부족으로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S에코에너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과 협력해 희토류 정제·금속화 기술 확보 및 베트남 자원과 연계한 단계별 밸류체인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유망 광산업체와 연계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에서 축적해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글로벌 희토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응우옌 호앙 롱 산업자원통상부 차관은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이 결합된 협력 모델은 국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